한화투자증권

2026년 3월 31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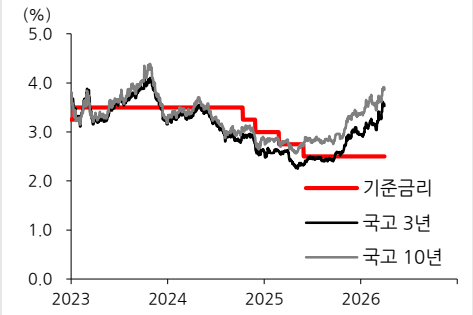
FI Comment

시늉에 그친 안정화 노력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크레딧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국제유가 및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추경 편성

정부, 국무회의 의결 통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편성된 예산안은 26.6조원으로 단일 추경 기준 금융위기(2009년 28.4조원) 이후 최대 규모. 동 재원의 상당 부분은 초과세수(재정경제부 전망: 25.2조원 증가)로 마련, 적자국채는 미발행. 금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p. 예산안은 1)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2) 민생 안정(2.8조원), 3)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9.7조원), 4) 국채 상환(1.0조원)에 편성, 지출될 예정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3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3,500억원 대출지원)과 4번. 2025년 중진공 채권 발행량이 5.1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추경 관련 공사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 문제는 국고채 시장

국채 상환 규모, 시장 안정에 턱없이 부족

금년 1~4월 국고채 발행량(4월은 계획 기준)은 78.6조원, 연간 국고채 순증물량은 109.4조원. 국채 상환자금이 전량 국고채 상환에 쓰인다고 가정하면 기 발행된 국고채의 1.3%, 순증물량의 0.9%만 흡수 가능.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급등한 시장금리를 안정시키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환 규모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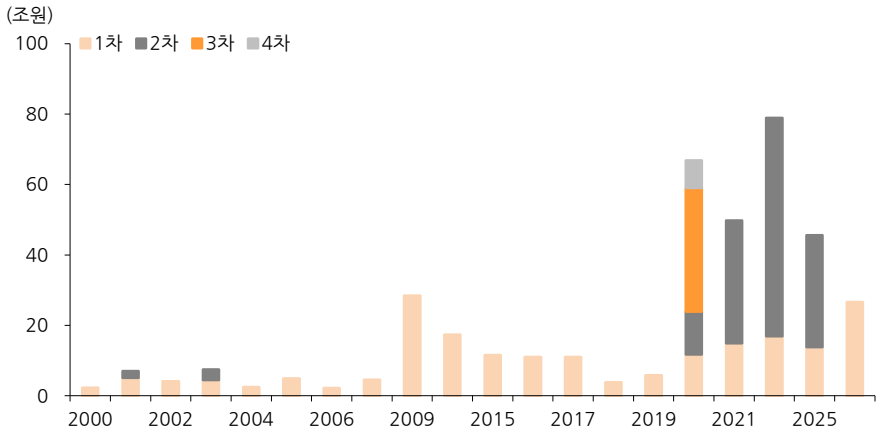
하방 경직성 강화된 흐름 지속 예상

시장이 소화했거나 반영 중인 악재는 중동전쟁(유가 급등 + 물가 상승),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추경, 환율 약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 재정건정성 악화 없는 추경은 이제 중립적 재료로 전환. 추경이 시장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나머지 이슈들은 금리의 하단을 견고하게 만드는 중.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전망) 전까지 국고 3년, 10년 하단은 각각 3.40%, 3.70%으로 제시. 하반기 초까지 시장금리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흐름을 보일 전망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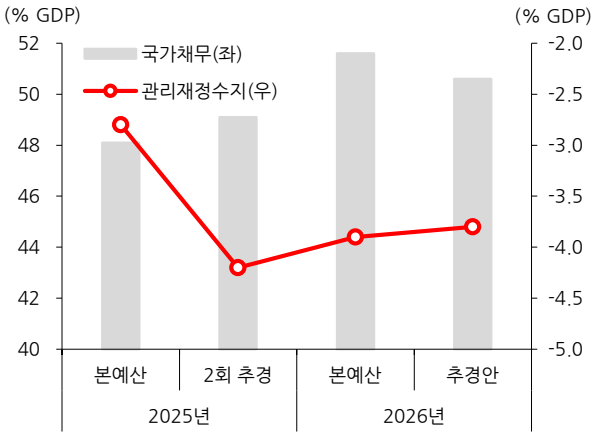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1] 2000 년 이후 연도별 추경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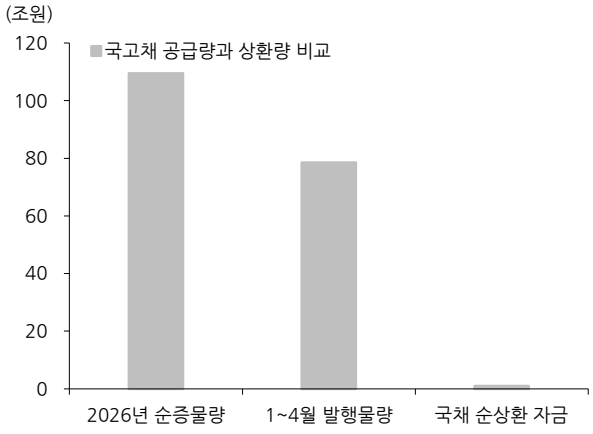
주: 2007, 2010~2012, 2014, 2023~2024년에는 추경 미편성
자료: 기획예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추경으로 인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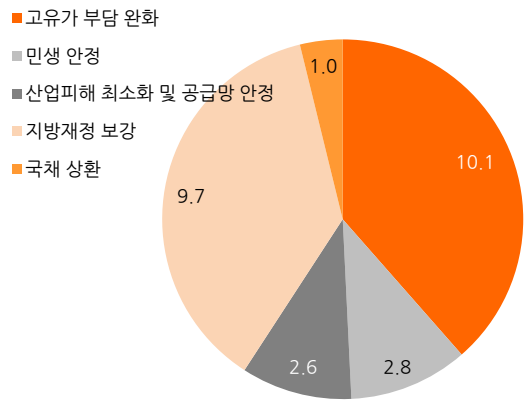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6 년 국고채 공급량과 상환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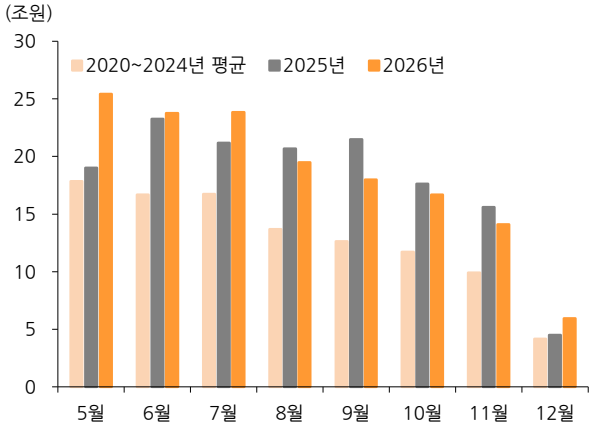
주: 1~3월 발행물량은 실적, 4월은 계획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추경 편성안 주요 내용



주: 단위는 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4 월 이후 과거 국고채 발행량 및 2026 년 예상 발행량



주: 2026년 발행량은 2020~2024년 월별 발행 비중에 기반해 산출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